

2018학년도 서강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 자료집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3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5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나) (다) (라) (마)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요약한 후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제시문

(가) 레이 피스만(Ray Fisman)과 에드워드 미구엘(Edward Miguel) 교수는 UN에 파견된 146개국 1700명의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실시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5년간 뉴욕시 교통국에 보고된 외교관들의 주차위반건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차위반이 보고는 되어도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가령 아프리카 수단 출신의 외교관은 5년간 121건, 이집트 출신의 외교관은 141건의 주차위반을 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 출신의 외교관은 단 한 건의 주차위반도 보고되지 않았다. 피스만과 미구엘 교수는 UN파견 대사들의 위법행위는 대사들 개인의 도덕성 보다는 출신국가의 부패인식지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는 각 국가별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를 평가한 수치로, 2003년도 세계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 수단은 106위, 이집트는 70위, 덴마크는 3위, 스웨덴은 6위를 각각 기록했다 (순위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로 인식되며, 순위가 낮을수록 부패한 국가로 인식됨) (Why Good People Sometimes Do Bad Things: 52 Reflections on Ethics at Work by Muel Kaptein, 32-33쪽 발췌 번역 및 생활과 윤리 167쪽 수정 발췌)

(나) 한 시대에 힘써야 하는 일은 한가지로 일반화할 수 없고 각각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들면 창업(創業)과 수성(壽城)과 경장(更張) 세가지 일 뿐입니다. (중략) 그 중에서 수성은 성왕(聖王)과 현명한 재상이 법령과 제도 등 다스릴 수 있는 도구를 모두 갖추고 예약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면, 후세의 임금과 후세의 신하는 다만 이미 완성된 법규에 따라 가만히 팔짱을 끼고 이것을 준수할 뿐인 것을 말합니다. (이이의 경장론 更張論 중에서, 생활과 윤리 147쪽)

(다) 아마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조에 족은 턱에 뽕뚜루라고 불리는 나무를 꽃고 다닌다. 뽕뚜루는 약 20cm 길이의 나무토막으로, 조에 족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나무토막을 꽃기 시작한다. (중략) 치열을 나쁘게 만들고 몇 달에 한 번씩 갈아 꽃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 들이 뽕뚜루를 꽃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뽕뚜루는 조에 족을 상징하기 때문이

다. 조에 족 사람들은 뽀뚜루를 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부족과 구분되는 조에 족의 일원임을 나타낸다. 또한 뽀뚜루는 미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서구 사회에서 귀걸이나 목걸이로 치장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것 처럼 조에 족은 뽀뚜루를 장신구로 여긴다. (사회 문화 92쪽)

(라) 히잡 쓰기를 거부한 채 사우디에 방문한 독일 여성 장관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히잡 착용을 거부한 독일 장관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방문했다. 장관은 사우디에 방문할 때 히잡 대신 정장을 입고 방문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 히잡, 아바야(히잡의 한 종류)를 입어야 한다. 하지만 장관은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옷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 장관의 복장은 사우디에서 분노를 야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장관의 행동은 고의적이다. 이것은 사우디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국제 사회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우디의 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전당대회 연설에서 부르카(히잡의 한 종류)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라이엔의 정장 차림 역시 사우디 등 이슬람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JTBC 2016년 12월 19일 보도내용)

(마) 외교부 공무원들이 공문을 조작해 국민 세금을 부서 회식비로 써 온 관행적 비리의 전말이 한 사회복무요원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개인적 보복 조치 등이 뒤따랐지만 여러 주변인들의 도움이 더해져 결국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23살 김경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맡았다. 처음 김 씨는 부서 회식이 지나치게 잦았다고 느꼈지만 외교부가 워낙 예산이 많은 부서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신도 참석했던 부서 회식 비용이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내부 공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깜짝 놀랐다. 참석하지도 않은 외부 기관 사람들의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고 업무 협의를 했다며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런 식의 직원들 밥값 유용은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수 차례씩 거듭됐다. 결국 김 씨는 지난 5월,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유용 정황을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에서만 이런 수법으로 모두 5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이 유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 2014년 12월 26일 보도)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개인의 윤리적/비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본질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체로서의 개인과 사회를 설명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즉, 개인의 윤리적/비윤리적 의사결정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2. 문항해설

-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인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을 소개하고 있다.
- 우선 '사회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그 구성원인 개인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구조나 사회의식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초월하는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실재론은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은 사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개인은 사회에 묻힌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 반면 '사회명목론'은 사회가 그저 개인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명목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단위는 각 개인일 뿐이어서 사회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행위 양식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종종 개인이 사회 구조와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기도 한다.
-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위의 두 이론처럼 개인과 사회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비판적이고 통합적이고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사회문화 65쪽)
- 이를 위해서 우선 (나)-(마)의 각 제시문이 사회실재론적 주장인지 사회명목론적 주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가)의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보다 통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가)에서 제기된 주장은 외교관의 위법행위(비윤리적 행동)가 출신 국가의 사회, 문화의 부패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실재론적 주장이다.
- (나)와 (다)는 (가)의 사회실재론적 주장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우선 (나)는 이의 경장론의 일부에서 발췌된 제시문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일 중의 하나가 훌륭한 통치 제도 혹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사회실재론적

주장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국민 개인의 행동양식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다)는 아마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조에 족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턱에 뽀뚜루라고 불리는 나무를 꽃고 다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에 족에 속한 개인들은 그러한 전통에 구속되어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사회실재론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라)와 (마)는 (가)의 사회실재론적 주장에 상반되는 사회명목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라)는 히잡 쓰기를 거부한 채 사우디에 방문한 독일 여성 장관 라이엔의 행보를 보도한 언론자료인데, 라이엔의 행동에는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고 있는 사우디의 불합리한 사회문화적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엔의 행동을 볼 때 사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개인은 종종 사회에 묻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주장하는 사회명목론적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 (마)는 한 공무원 조직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행적을 소개한 언론사 보도자료로서, 개인은 사회(조직도 협의의 사회로 볼 수 있음)에 압도당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조와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사회명목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3. 채점기준 및 참고사항

- 개인의 윤리적/비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본질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체로서의 개인과 사회를 설명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각 이론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으면 득점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4. 예시답안

(가)는 UN파견 대사들의 위법행위는 대사들 출신국가의 부패인식지수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개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실재론'적 주장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사회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는 그저 개인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명목적인 존재이며,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행위 양식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고, 종종 개인이 사회 구조와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두 이론의 통합적인 해석이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형성된 윤리적 가치나 규범 등을 다소 수동적으로 따르기도 하지만 개인이 항상 그러한 사회적 영향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UN파견 외교관의 주차위 반행위의 원인을 전적으로 출신국가의 부패 문화로 귀속시키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가령, 부패한 국가에서 파견된 외교관도 성장과정에서 확고한 개인의 윤리의식을 소유하게 되어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청렴한 국가에서 파견된 외교관도 성장과정에서 왜곡된 윤리의식을 습득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두 교수의 주장처럼 사회가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수단의 외교관 보다 이집트의 외교관의 주차위반 건수가 더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더 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덴마크나 스웨덴 출신의 외교관들의 주차위반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반면에, 수단과 이집트 출신 외교관의 위반 건수는 무려 130여건(평균)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면, 외교관의 비윤리적 행위를 온전히 외교관 개인의 도덕성의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